메시지 9

이집트와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성경: 렘 46:2-28, 50:1, 8-16, 51:6-9, 24-25, 28-37, 44-45, 58-64

Ⅰ. 예레미야서는 세상의 여러 방면들을 예표하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에 대한 그림을 제시해 준다 — 렘 46:2, 47:1, 48:1, 49:1, 7, 23, 28, 34, 50:1.

A. 민족들에 관해 말할 때, 예레미야는 이집트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렘 46:2-28) 바빌론을 마지막에 언급한다(50-51장).

1.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이, 먼저는 이집트적이고 그다음으로는 바빌론적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2. 예레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그림에 따르면, 마지막에 심판받을 민족은 바빌론이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심판하실 때, 민족들에 대한 그분의 심판이 완성될 것이다.

B.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약의 선민인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그것의 모든 방면들에서 분별되어야 한다 — 요 17:14, 16, 롬 12:2, 요일 2:15-17.

Ⅱ. 예레미야서 46장 2절부터 28절까지는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한다.

A. 이집트는 생계와 누림의 세상을 나타내는 예표인데, 이집트의 통치자인 파라오로 예표되는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은 그러한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위해 선택하신 백성을 사로잡고 탈취한다 — 창 12:10, 41:57-42:3, 민 11:4-6, 히 11:25, 요 12:31.

1. 이집트 민족은 어둠의 왕국, 곧 어둠의 권세를 상징한다 — 골 1:13, 마 12:26.
2. 세상은 누림의 근원이 아니다. 세상은 학정의 장소이며, 세상의 각 방면은 학정의 한 형태이다 — 갈 4:8.
3. 세상에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운명이 정해진 이들을 자신의 강탈하는 손 아래 붙잡아 두고 있다 — 엡 2:2, 눅 13:11-12.
   a. 존재하는 것과 신성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 롬 8:28, 엡 1:11, 3:11, 딤후 1:9.
   b. 사탄은 사람들을 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존에만 주의하게 하고, 그들을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는 주의하지 않게 하였다 — 마 6:25, 31-33.
4.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의 한 방면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사탄과 세상의 강탈과 학정으로부터 이끌어 내시는 것이다 — 행 26:18, 엡 3:9.

B. 세상은 사탄에 의해 조직적으로 배열된 악한 체계이다 — 요일 2:15-17, 약 4:4.

1.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강탈하기 위해서, 문화와 교육과 산업과 상업과 오락과 종교 등과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체계화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체계를 형성했다 — 엡 3:11, 창 1:26-28, 2:8-9, 4:16-24.
2.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특히 인류와 관련된 것과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은 사탄에 의해 그의 어둠의 왕국으로 체계화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점유하고 좌절시키며,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누림에서 빗나가게 한다 — 요일 2:15-17.
3.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이다 — 요일 2:15-17, 약 4:4.
4. '온 세상' 곧 사탄적인 체계는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 — 요일 5:19.
   a. '온 세상'은 사탄적인 세상 체계와 세상 사람들, 곧 타락한 인류로 구성된다.
   b. '놓여 있다'는 것은 악한 자에게 강탈당하고 조종받는 영역 안에 수동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 사탄의 강탈하고 조종하는 손 아래 수동적으로 놓여 있다.
   c.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악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치명적이고 해악을 끼치는 자를 가리킨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어 사람들을 사악하고 악독하게 만드는 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악한 자가 바로 사탄 곧 마귀이며, 온 세상이 그 안에 놓여 있다.
5. 사탄은 물질적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모든 것을 그의 머리 아래 통일할 것이다. 그때에 세상 체계는 그 정점에 이를 것이고, 세상 체계를 이루는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인을 반대하는 것임이 드러날 것이다 — 살후 2:3-12.
6. 사탄의 악한 세상 체계인 어둠의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 심판받았다 — 요 12:31-32, 16:11.
   a.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죽으심으로,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을 멸망시키셨다 — 롬 8:3, 히 2:14.
   b. 이와 같이 사탄을 심판하심으로써 주님은 또한 사탄에게 속한 세상을 심판하셨다 — 요 16:11.
   c.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심으로 세상은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은 쫓겨났다 — 요 12:31-32.

메시지 9 (계속)

Ⅲ.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은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한다.

A. 바빌론은 바벨에서 시작하였다 — 창 10:8-10.

1. 바벨에서 사탄은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들을 숭배하며 사람의 자아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처럼 바벨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과 자아를 높이는 것의 기원이자 근원이었다 — 창 11:1-9.
2. 바벨은 바빌론으로 계속 이어졌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빌론은 인간 정부의 완결이다 — 렘 50:1, 단 2:32-34.
   a. 심지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탄의 체현으로서 사탄과 동일시되기까지 했다 — 사 14:4, 11-15.
   b. 이 바빌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 그분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갔다 — 대하 36:17-20.

B.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복원된 로마 제국은 큰 바빌론이라 불리는데, 큰 바빌론은 두 방면, 곧 종교적인 방면과 물질적인 방면을 갖는다.

1. 요한계시록 17장은 종교적인 바빌론, 곧 변절한 로마 가톨릭교회를 밝혀 준다.
   a.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대교의 많은 것들을 영속시키고 이교도의 많은 것들을 흡수한 로마 가톨릭교회는 바빌론이다.
   b.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나오는 창녀는 변절한 로마 가톨릭교회이다.
   c. 하나님은 변절한 교회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대환난의 시작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열 왕이 로마 가톨릭교회를 파괴하도록 하실 것이다 — 계 17:16-17.
2. 요한계시록 18장은 물질적인 바빌론인 로마성을 밝혀 준다.
   a.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바빌론의 두 방면, 곧 종교적인 방면과 물질적인 방면이 함께 섞여 있다.
      1)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의 창녀는 로마 가톨릭교회를 상징하는 종교적인 바빌론을 가리키지만, 18절의 여자는 로마성을 상징하는 물질적인 바빌론을 가리킨다.
      2) 큰 바빌론에는 두 방면이 있기 때문에, 큰 바빌론에서 나오는 것은 종교적인 바빌론과 물질적인 바빌론, 둘 다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 계 18:4.
   b. 물질적인 바빌론인 로마성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혐오스럽게 될 것인데, 이것은 그것이 마귀적인 정치와 마귀적인 종교 둘 다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 계 18:6-8, 20-24.

c.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는 땅 위에 빛을 비추시며 그분의 큰 권위로 큰 바빌론인 로마성을 멸하실 것이다 — 계 18:1-2.

C. 바빌론의 원칙은 사람의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육체에 속한 것들과 그 영께 속한 것들을 혼합시키는 것이다 — 계 17:1-5.

1. 바빌론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우상들에 속한 것들의 혼합이다.

a.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불태웠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가져갔으며, 그것들을 바빌론에 있는 그의 우상들의 신전에 두었다 — 대하 36:6-7, 스 1:11.

b. 신약에서 이러한 혼합은 큰 바빌론으로 확대된다 — 계 17:3-5.

2. 우리는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혼합되고, 사람의 재능이 하나님의 일과 혼합되며,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나와야 한다 — 계 18:4 각주 1.

D. 큰 바빌론은 두 번의 무너짐, 곧 종교적인 바빌론의 무너짐과 물질적인 바빌론의 무너짐이 있을 것이다 — 계 14:8, 18:2.

1. 종교적인 바빌론의 무너짐은 대환난의 시작에 일어날 것이다 — 계 17:16-17.

2. 물질적인 바빌론의 무너짐은 대환난의 끝에 일어날 것이다 — 계 18:2, 21.

3.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찬양은 주로 물질적인 바빌론의 무너짐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바빌론의 무너짐과 연관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종교적인 바빌론이 물질적인 바빌론보다 더 혐오스럽기 때문이다.

E. 하나님은 바빌론에 속한 어떤 것도 우주 안에 남아 있지 않을 정도까지 바빌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1.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모두, 일단 바빌론이 멸망한 후에는 복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사 14:22-23, 렘 50:39, 51:62.

2. 하나님께서 이 시대 끝에 종교적인 바빌론과 물질적인 바빌론을 모두 멸망시키실 때, 그것이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에 예언된 바빌론에 대한 심판의 종결이 될 것이다.

3. 큰 바빌론은 멸망당하고 이 땅에서 제거되며 불 못에 던져질 것이고, 그런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뛰어난 중심이 될 것이다 — 계 11:15, 21:2, 10-11.

© 2020 Living Stream Ministry